

조선시대 한글활자본의 인출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ngraver's Activity of Chosun Period Recorded in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Kept in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우진웅 (Woo, Jin-Woo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임란후 인출 한글활자본과 번각본 간행 |
| 2. 한글문헌의 간행 배경과 한글활자본 | 5. 결 언 |
| 3. 임란전 인출 한글활자본과 번각본 간행 | <참고문헌> |

< 초 록 >

한글 창제 이후 조선시대에는 한글과 활자가 융합하여 다양한 주제의 한글활자본이 생산되었다. 한글활자본은 더 많은 보급을 위해 원본의 활자본을 번각하거나 번각본을 재번각하여 활자본의 체제를 유지한 채 오랫동안 한글의 명맥을 이어왔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한글활자본과 한글활자본을 재생산하기 위해 번각 간행한 판본을 정리하여 간행 양상 및 원본과 재생산된 판본의 시기적 범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된 한글활자본은 총 76종으로, 이 중 61%인 46종이 최소 한차례 이상 번각하여 간행되었다. 재생산된 한글활자본은 초주갑인자본 2종, 을해자본 13종, 을유자본 1종, 을해자체경서자본 6종, 병진왜언자본 1종, 무신자본 11종, 정유자본 9종, 교서관인서체자본 1종, 정리자본 1종이다.

2. 초주갑인자본 「두시언해」(1481)의 번각본은 18세기까지 간행된 판본이 전해져 약 200년 이상을 재생산하여 갑인자본 체제가 이어졌고, 을해자본 「영험약초언해」와 「불경심다라니경언해」(1485), 을해자체경서자본 경서언해는 약 150년, 무신자본 경서언해는 약 170년 동안 재생산되어 활자본의 체제가 이어졌다.

3. 가장 많이 재생산된 것은 조선후기 무신자본, 정유자본 등을 번각한 경서의 언해본이다. 영정조대 서적 간행의 증가와 중앙에서 각 지방에 배포하여 여러 차례 번각하여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활자본 인출 이후 재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원종자본 「맹자언해」(1694)는 1695년경에 무신자본이 인출되어 이후 무신자본을 번각한 판본이 보편화되었고, 을해자본 「능엄경언해」(1461)는 을해자본의 오류를 수정하여 1462년에 간행한 간경도감본이 이후 각 사찰에서 번각하였기 때문에 재생산되지 않았다. 또한 무신자본 「어제상훈언해」 왕실 교화용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재생산하지 않았고, 무신자본 「사서울곡언해」(1749)는 권력자의 조력으로 일회성으로 인출되었다. 기타 20세기 말 인출된 제주정리자본 「신정심상소학」과 「만국약사」는 교과서 및 인쇄 방식의 변화가 오면서 재생산되지 않았다.

要語: 한글활자본, 을해자, 갑인자, 을해자체경서자, 목판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1660).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jwoong78@naver.com)

투고일: 2019년 8월 19일 최초심사일: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7일

서지학연구, 제79집, 89-110,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9.89>

<ABSTRACT>

Since Han-gul was created in the Joseon Dynasty, Hangeul and metal types were used to create Korean old literature with various themes. The book printed with wooden type or metal type in Korean maintained the system of tangible format by re-printing the original book or re-engraving it in order to be more widely available. Through this, Hangeul continued to be used. The study compiled the printed literature for the re-creation of Han-gul type and Han-gul type books in the Joseon Dynasty. We looked at the publishing patterns and the time span of the original and the reproduced edi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total number of Han-gul type books surveyed was 76 kinds, of which 46 types, or 61 percent, were re-engraved at least once. The reproduced Han-gul type books is two types of first gabinja, 13 kinds of Eulhaeja, one kind of Eulyooja, six kinds of EulhaejacheGyungseoja, one kind of ByeongjinWaerunja, 11 kinds of Moosinja, nine kinds of Jeongyooja, one type of Jeonglija.

2. A re-engraved version of the first Gabinja, *DoosiUnhae* (1481) remains some editions published until the 18th century. This shows that it has been reproduced for more than 200 years and maintained Gabinja style. In addition, Eulhaeja books, *Younghumyakchounhae*, *Boojungsimdaranigyeongunhae* (1485) and EulhaeJachegyungseoja books have been reproduced for about 150 years. Musinja books have been reproduced for about 170 years.

3. The most frequently reproduced version is the Gyeongseounhae version of Moosinja, Jeongyooja book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is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publication of books in Yeongjo and Jeongjo and the fact that the books were distributed to each province from the central region and were published on a number of occasions. Conversely, Wonjongja books, *Mengjaunhae* (1694) have not been reproduced. Since the book was printed in 1695 with Moosinja metal type, later the reprinted Moosinja edition was became common. The Eulhaeja *Neungumgyungunhae* (1461), corrected the error of Eulhaeja edition and published in 1462, was mainly used. Since then, as many temples have been published the 1462 edition that is published in Gangyungdogam, 1461 Ulhae metal type edition has not been reproduced. Nor did the Moosinja edition of *Ujesanghununhae* reprinted, for this book is used of royal education and unity purposes. And the metal type Moosinja *Saseoyoulgokunhae* (1749), was re-published once with the help of those in power. Other types of textbooks include *Sinjeongsimsangsohak* and *Mangkyakksa* were published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books were not reproduced in the wake of changes in textbooks and printing methods.

Key words: Hangeul metal-type printed book, Eulhaeja, Gabinja, Eulhaejachegyungseoja, woodblock edition

1. 서 언

금속활자를 이용한 문헌의 인쇄는 여러 기록과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로부터 계승된 금속활자 인쇄술을 더욱 발전시켜 건국 초기부터 후기까지 목적과 실용성에 따라 다양한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문헌의 보급과 전파, 지식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훈민정음」 창제 후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등 조선 전기의 한글문헌은 주로 죽은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왕실의 필요성과 의지에 의해 간행하였으며,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여러 종류의 불경 언해본을 간행하였다.

간경도감본을 비롯한 조선 전기에 간행된 불경의 언해본은 조선 중기까지 여러 사찰에서 번각하여 많은 판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앙 관청을 중심으로 하여 의서, 구휼 관련 서적을 언해본으로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16세기 말에는 경서를 언해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여 경서언해를 금속활자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다양한 주제의 한글활자본¹⁾이 인출되었다. 중앙에서 인출한 한글활자본은 지방 감영에 배포하거나 지방의 서원이나 향교 등의 기관에 내사하였는데 더 많은 보급을 위해 각 지역에서는 활자본을 다시 목판에 뒤집어 새기는 번각의 방법으로 판각하여 재생산하였다. 번각은 현대의 복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원본의 형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본이 인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훼손되거나 내용의 소실을 막기 위한 기록 보존적 측면에서도 원본을 번각하거나 또는 번각본을 재번각하여 간행하였다. 이렇듯 한글활자본은 원본의 생산 이후 번각의 방법으로 목판본으로 재생산하여 활자본의 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의 많은 문헌들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글활자본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 측면에서 서지학과 국어사 분야에서 다수 이루어졌다. 서지학 분야에서 김성수는 「월인천강지곡」 한글활자 복원을 위해 한글활자를 주조하고 조판을 복원한 실험을 바탕으로 조판과 활자의 특성에 대해 고증하였고,²⁾ 이재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현존 활자 가운데 한글활자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한글활자의 사용을 현전 인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증하였다.³⁾ 강순애는 조선시대 한글활자본을 통해 활자주조법의 기술적 발전에 관한 고찰을 위해 조선조 한글활자 판본을 개관하고, 한글활자 주조법의 기술적 발전과 현존 한글활자와 터널형 한글

1) 실질적인 대상 자료는 한글활자본과 한글활자본의 번각본이다. 한글활자본은 금속활자로 찍은 한글이 수록된 문헌을 의미하지만 한문부분이 금속활자본이고 한글부분이 목활자로 찍은 한글문헌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언해본, 현토본, 음독본이 해당한다. 금속활자본의 번각본에 대한 확정은 자체, 판식 등 여러 형태적인 사항을 비교하여 특정 활자본의 번각본임을 확정하였으며 간행시기, 간행지역 등 간행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간기가 있는 것을 참고하고, 간기가 없을 시에는 서문, 발문, 내사기 등을 참고하여 간행시기를 추정하였다. 약 30여종이 되는 윤음언해는 다루지 않았다. 대상 자료의 시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1910년대까지이며, 활자명은 천혜봉의 「한국서지학」(민음사, 2006)에 의거하였다.

2) 김성수, “「월인천강지곡」 한글활자 복원을 위한 실험 주조·조판 연구,” 『서지학연구』 49(2011), 143-167.

3)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활자 연구,” 『서지학연구』 31(2005), 89-120.

활자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⁴⁾ 옥영정은 「월인천강지곡」의 서지학적인 특징과 인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출판인쇄사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⁵⁾

국어사 분야에서 이호권은 한글 창제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한글문헌을 대상으로 문헌 간행의 역사를 다섯 부분으로 구분하여 시기별 간행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았고,⁶⁾ 석주연은 조선시대 관판 한글문헌에 대해 소통의 관점에서 간행 경위와 배포 양상을 고찰하였다.⁷⁾ 또한 김무봉은 언해본의 정의를 규명하고 언해본의 현황과 언해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규명하였으며,⁸⁾ 김풍기는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였다.⁹⁾ 하지만 조선시대에 인출된 한글활자본과 한글활자본을 재생산한 번각본의 간행 양상 등에 대한 서지적인 접근과 이에 대한 정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생산된 한글활자본 76종과 한글활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에 대하여 정리하여 재생산된 한글활자본의 종류와 시기적 범위, 간행 양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글문헌의 간행 배경과 한글활자본

2.1 한글문헌의 간행 배경

「훈민정음」의 창제 후 조선 초기의 한글문헌은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등이 간행되었고, 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경을 번역하는 기관인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법화경」, 「능엄경」 등 여러 불교경전을 언해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조선 전기 이러한 불경의 언해 사업은 주로 왕실이나 종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조의 치국 이념이나 당시의 시대 상황과는 배치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헌을 간행한 이유는 죽은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고 그 결과 언해라는 방식을 통한 문헌의 간행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귀결되었다.¹⁰⁾

또한 한글문헌의 간행 배경은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지배층은 중국의 언어가 조선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지배층은 한문이라는 표기 수단을 가지

4) 강순애, “조선조 한글활자 판본을 통해 본 活字鑄造法의 技術的 發展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39집(2008), 31-68.

5) 옥영정, “월인천강지곡」의 인쇄사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국어사연구』 제26호(2018), 129-158.

6)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제41권(2008), 83-114.

7) 석주연, “조선시대 한글문헌 간행경위와 배포 양상 연구 - ‘소통’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7호(2010), 43-70.

8) 김무봉,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현황과 사회 문화적 의의,” 『동악어문학』 제58호(2012), 5-50.

9) 김풍기,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문화적 의미 - 중화문명권으로의 진입과 탈출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58호(2012), 165-188.

10) 김무봉(2012), 37.

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한문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표기 수단을 마련해 줄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¹¹⁾ 백성의 교화를 위한 한글문헌의 간행은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한글문헌을 간행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려는 사례는 『실록』의 기사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癸未年에 명하여 『諺解小學』을 인쇄하여 중외에 퍼내게 하셨는데, 이는 아낙네와 아이들도 다 알 수 있게 하려고 한 것,¹²⁾ 언해를 하지 않으면 궁벽한 시골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警民編諺解』의 간행을 청한 것,¹³⁾ 宗簿寺에서 『小學』과 『小學諺解』를 인쇄하여 나이 어린 종친 자제들이 읽고 익힐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한 것,¹⁴⁾ 임금이 『無冤錄』은 사형에 관한 옥사를 판결하기 위한 것인데 본문이 어려워 누구나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언해를 짓도록 명한 것¹⁵⁾ 등의 기사에서 보듯이 한글문헌은 일반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적지 않은 한글문헌이 생산되었던 것은 한문을 깨우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한 교화정책의 일환과 『警民編』, 『小學』 등을 통한 유교의 장려, 중앙 정부 주도로 조성된 금속활자 인쇄술이 크게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활자본도 많이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2.2 시기별 한글활자본 인출

한글활자본과 번각본의 간행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한글문헌 간행의 시기 구분에 의거하여 각 시기별 한글활자본 인출 양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한글문헌의 시기 구분에 있어 이호권¹⁶⁾은 제1기 요람기(1443-1469, 한글 초기문헌이 가지는 서지학적, 언어학적 특징을 반영한 시기), 제2기 성장기(1470-1592, 한글 사용이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한글문헌이 간행된 시기), 제3기 변동기(1592-1724, 전쟁 이후 간행 문헌이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시기), 제4기 융성기(1725-1800, 다양한 한글문헌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시기), 제5기 변혁기(1801-1894, 새로운 변혁의 모습을 보이던 시기)로 보았다.

제1기는 『훈민정음』 창제(1443)부터 成宗即位(1469)까지로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 등을 비롯하여 1461년 간경도감에서 불경언해본이 간행됨으로써 본격적인 불경 언해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인출된 한글활자본은 初鑄甲寅字本 『月印千江之曲』(1447-48), 『釋譜詳節』(1447-48),

11) 김풍기(2012), 166.

12) 『朝鮮王朝實錄』 仁宗 1年(1545) 1月 戊午.

13)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1658) 12月 丁亥.

14) 『朝鮮王朝實錄』 顯宗 9年(1668) 8月 壬申.

15)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1791) 3月 己丑.

16)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제41권(2008). 이 시기구분은 최현배(『고친 한글갈』, 서울: 정음사, 1961)의 한글 창제 시기(세종-세조), 한글 정착 시기(성종-임진왜란), 한글 변동 시기(임진왜란-경종), 한글 간편화 시기(영조-갑오경장), 한글 각성 시기(갑오경장-8.15 해방), 한글대성시기(8.15 해방-)에 의거하였다.

「舍利靈應記」(1449), 「東國正韻」(1448), 「洪武正韻譯訓」(1455) 등 5종이 인출되었고, 乙亥字本 「阿彌陀經諺解」(1461), 「楞嚴經諺解」(1461), 「周易傳義口訣」(1466), 「救急方諺解」(1466년경) 등 4종, 乙酉字本 「圓覺經口訣」(1465) 등이 있다.

제2기(성장기)는 成宗 元年(1470)부터 임진왜란(1592) 전까지이며, 한글 사용이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한글문헌이 간행된 시기였다. 1482년 慈聖大妃의 명으로 「金剛經三家解」와 「南明集諺解」, 1485년 「佛頂心陀羅尼經諺解」와 「靈驗略抄諺解」가 인출되었다. 이 시기에는 간경도감본이 사찰에 보급되었고, 사찰에서는 주로 간경도감본을 번각하였기 때문에 간경도감본의 번각본과 그 계열이 조선 전기 불경언해본의 주를 이루게 된다. 또한 1481년에는 최초의 한글 언해 시집인 「杜詩諺解」가 인출되었으며, 「救急方諺解」, 「救荒撮要諺解」 등 전염병 예방과 치료, 기근 구제 등 백성들을 위한 한글문헌이 계속해서 나왔다. 16세기 후반에는 宣祖의 관심과 노력으로 경서언해를 완성하여 「小學諺解」와 四書諺解가 인출되었다. 이 시기의 한글활자본은 조선 후기까지 재생산되어 한글과 활자본의 명맥을 이어주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인출된 한글활자본은 初鑄甲寅字本 「吏文輯覽」(16세기) 1종, 乙亥字本 「分類杜工部詩諺解」(1481), 「南明集諺解」(1482), 「金剛經三家解」(1482), 「佛頂心陀羅尼經諺解」(1485), 「靈驗略抄諺解」(1485), 「救急簡易方諺解」(1489), 「翻譯老乞大」(1510년대), 「老朴集覽」(1510년대), 「翻譯朴通事」(1510년대), 「吏文諸書輯覽」(1539), 「分門瘟疫易解方」(1542), 「救荒撮要諺解」(1554), 「四聲通解」(1571), 「御製內訓」(1573), 「呂氏鄉約諺解」(1574), 「簡易辟瘟方諺解」(1578), 「牛馬羊猪染疫治療方」(1578), 「南華真經大文口訣」(16세기 중엽), 「翻譯小學」(16세기), 「論語大文口訣」(16세기 중엽), 「句解南華真經口訣」(16세기 중엽) 등 21종, 乙亥字體經書字本 「小學諺解」(1588년 內賜), 「大學諺解」(1590년 內賜), 「中庸諺解」(1590년 內賜), 「論語諺解」(1590년 內賜), 「孟子諺解」(1590년 內賜), 「孝經諺解」(1590년 內賜) 등 6종이 있다.

제3기는 임진왜란(1592)부터 景宗朝(1724)에 이르는 시기로, 경서언해를 비롯해 의서, 구황서, 왕실용 교화서 등의 한글문헌이 많이 간행되었다. 임진왜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속활자 주조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한글활자본은 17세기 후반부터 인출한 무신자본이 주류를 이룬다.

이 시기에 인출된 한글활자본은 戊申字本 「老乞大諺解」(1675), 「論語諺解」(1695년경), 「孟子諺解」(1695년경), 「大學諺解」(1695년경), 「中庸諺解」(1695년경), 「周易諺解」(1695년경), 「書傳諺解」(1695년경), 「詩經諺解」(1695년경), 「禮記大文諺讀」(1707), 「辟瘟新房諺解」, 「馬經抄集諺解」 등 11종, 丙辰倭諺字本 「捷解新語」(1676) 등이 있다.

제4기는 英正祖 재위 기간(1725-1800)에 해당되는 시기로, 갑인자본 계열을 비롯한 활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 간행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인출된 한글활자본은 戊申字本 「女四書諺解」(1737), 「御製內訓」(1737), 「小學諺解」(1744), 「御製常訓諺解」(1745), 「中庸栗谷諺解」(1749), 「孟子栗谷諺解」(1749), 「大學栗谷諺解」(1749), 「論語栗谷諺解」(1749), 「御製訓書諺解」(1756), 「御製百行願」(1765), 「禮記大文諺讀」(18세기 초중엽) 등 11종, 丁酉字本 「字恤典則」(1783), 「大學諺解」(1790경),

『論語諺解』(1790년경), 『孟子諺解』(1790년경), 『中庸諺解』(1790년경), 『周易諺解』(1790년경), 『詩經諺解』(1790년경), 『書傳諺解』(1790년경), 『明義錄諺解』(1777), 『續明義錄諺解』(1778) 등 10종, 整理字本 『五倫行實圖』(1797), 校書館印書體字本 『增修無冤錄諺解』(1790) 등이 있다.

제5기는 純祖 즉위년(1801)부터 甲午更張(1894)까지이다. 한글활자본의 인출이 이전에 비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전에 인출된 한글활자본을 번각하여 嶺營, 完營 등 지방 감영이나 방각본 형태로 간행하여 보급된 시기였다. 또한 奎史字本으로 『華語類抄』(19세기말), 『華音啓蒙諺解』(1883)가 인출되었으며, 이 시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再鑄整理字本 『萬國略史』(1896), 『新訂尋常小學』(1896) 등의 교과서가 인출되었다.

3. 임란전 인출 한글활자본과 번각본 간행

중앙에서 인출한 한글활자본은 지방 관청에 배포하거나 내사본의 형태로 개인이나 기관에 내려졌다. 활자본은 많은 부수를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자본을 재생산하기 위해 번각의 방법으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번각’은 이전에 새긴 책판에서 인쇄한 문헌을 원본으로 삼아 원본을 뜯어서 한 장씩 목판에 뒤집어 붙여 목판으로 새기는 것으로 ‘覆刻’이라고도 한다. 번각은 다시 서사자가 글을 써서 板下本을 만드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이전에 간행된 책의 자체와 판식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근대와 현대의 과학적인 복제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조선시대 전통적인 복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번각본을 간행하고 그 이후에도 번각본을 다시 번각함으로써 원본의 계통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번각은 원본이 인출되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원본의 훼손과 내용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기록 보존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졌다. 그 실례로 『實錄』의 기사를 살펴보면, 1785년에는 “『大典通編』을 간행, 반포하고 호남, 영남, 관서의 각 감영에 번각하여 판본을 보관하게 하라”고 명하였으며,¹⁷⁾ 1794년에는 “『朱書百選』이 완성되자 호남, 영남, 관서의 감영에 나누어 이 책을 번각하고 판본을 보관하게 명하였다”는 기록¹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에서 각 지역에 주요 서적을 내려주어 이를 번각하여 책을 생산하는 동시에 기록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번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갑인자본부터 을해자체경서자본까지 임란 전후로 구분하여 한글활자본의 인출과 한글활자본의 번각본 간행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¹⁹⁾

17) 『朝鮮王朝實錄』 正祖 9年(1785) 9月 丁巳.

18) 『朝鮮王朝實錄』 正祖 18年(1794) 12月 戊寅.

19) 한글 장제와 정작, 금속활자 인쇄의 성행으로 많은 한글활자본이 임란 전에 인출되었으며, 임란 후 한글활자본이 생산되기까지 공백이 길다는 점, 형태적으로도 임란 전후 인본은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란전후로 나누었다.

3.1 甲寅字本

甲寅字는 1420년에 만든 庚子字의 자체가 가늘고 뾰뾰하여 읽기에 불편함이 있어 좀 더 큰 활자의 필요성이 있어 1434년에 주조된 활자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世祖는 재위 후 한글 보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글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인자를 바탕으로 최초의 한글 활자인 ‘초주갑인자병용한글활자’를 주성하였다. 1446년에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편찬한 『釋譜詳節』과 세종이 『석보상절』을 보고 난 뒤에 지었다는 『月印千江之曲』이 본 한글 활자로 인출하였다.

『석보상절』(1447-1448)은 世宗의 명으로 首陽大君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零本 4책(권6, 9, 13, 19), 동국대도서관에 零本 2책(권23, 24), 호암미술관에 零本 1책(권20, 21)이 전해진다. 『석보상절』의 번각본은 권11이 전해지고 있다.²⁰⁾ 원본과 번각본의 권차는 같지 않으나 동일한 글자를 비교해보면 번각본은 글자의 모양이 굵고 투박한 것이 나타나며 특히 ‘아래 아’의 모양이 변화된 것이 모든 곳에서 확인된다.²¹⁾ 활자본 인출 직후가 아닌 15세기말에서 16세기 초 무렵에 번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月印千江之曲』(1447-1448)은 『석보상절』과 함께 한글 활자로 인출한 최초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首陽大君이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석보상절』을 보고, 世宗이 석가의 공덕을 칭송한 악장 형식의 노래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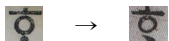
『東國正韻』(1448)은 申叔舟, 崔恒, 朴彭年 등이 왕명으로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1447년 9월에 완성하였다. 『實錄』에 “『東國正韻』을 제도와 성균관, 사부학당에 반사하다.”²³⁾는 기록에 의해 1448년에 간행되고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송미술관에 零本 2책(권1, 6, 국보 제71호), 건국대에 6권 6책(국보 제142호)이 전해진다. 한글의 小字와 한문의 大字는 진양대군 글씨체의 목활자(일명 ‘동국정운목활자’)이며, 한문 小字는 갑인자로 인출하였다.

『舍利靈應記』(1449)는 金守溫이 편찬한 부처님 사리에 대한 영험기이다. 동국대와 고려대에 전해지고 있으며, 한글 표기 인명이 한글 활자이다.

『洪武正韻譯訓』(1455)은 明의 운서인 『洪武正韻』을 한글로 번역하여 중국 음운에 대한 표준을 세우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한글과 한자 大字는 목활자, 한자 小字는 갑인자로 인출하였다. 고려대에 零本 7책(권3-16, 보물 제417호)이 전해진다.

『句解南華真經口訣』(16세기 중엽)은 宋 林希逸이 『南華真經』을 풀이한 『句解南華真經』의 본문에 한글로 구결을 단 책으로 한자의 大字와 小字는 갑인자, 음각된 한글은 목활자로 인출하였다.²⁴⁾

20) 리움미술관 소장(보물 제523-3호)

21) 

22) 대한교과서(현 미래엔)에서 장서각에 기탁(권상 1책, 국보 제320호)

23) 『朝鮮王朝實錄』 世宗 30年 10月 庚午.

24) 고려대 만송문고(권1-2, 7-10), 규장각(권3), 장서각(권1-2), 계명대도서관(권1-3, 5) 등에 전해지고 있다.

『구해남화진경구결』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간행한 번각본과 번각본의 재번각본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吏文輯覽』(16세기 중엽)은 崔世珍(1465-1542)이 명나라와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모은 책인 『吏文』의 어려운 어구를 뽑아서 풀이한 책이다.²⁵⁾ 한자는 갑인자, 한글은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3.2 乙亥字本

乙亥字는 1455년에 만들어진 동활자이다. 불경의 국역 간행을 위하여 을해자를 사용한 이후 宣祖代까지 사용하였으며 『능엄경언해』 등 불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한글문헌이 인출되었다.

『능엄경언해』(1461)는 『楞嚴經』에 宋 戒環이 해설을 붙인 『首楞嚴經要解』(1127)를 世祖가 한글 구결을 달고 韓繼禧, 金守溫 등이 慧覺尊者 信眉의 도움으로 번역한 최초의 을해자본 한글활자본이다. 한문의 大字와 中字는 을해자, 구결과 언해는 小字를 사용하였다. 『능엄경언해』는 400부를 급하게 인출하다 보니 오류가 많아 이를 수정하여 1년 후인 1462년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다시 간행하였다. 그러므로 을해자본 『능엄경언해』는 후에 재생산되지 않았으며 간경도감본이 보급되어 사찰에서 번각하였다. 『救急方諺解』(1466)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방법을 모아 언해한 의학서이다. 『世祖實錄』에 “1466년 八道에 『救急方』을 각각 2권씩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²⁶⁾이 있어 당시 을해자로 인출하여 지방에 하사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원간본은 전해지지 않으나 16세기 중반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판본이 규장각(상권 1책)과 일본 蓬左文庫(상하권 2책)에 전해지고 있다.

『救急簡易方諺解』는 尹壕, 任元濬, 許琮 등이 왕명을 받아 병을 127종으로 나누어 8권으로 편찬, 간행한 의학서이다. 을해자본은 전해지지 않으나 을해자의 번각본 중 권1은 규장각, 권2는 국학진흥원, 권3은 동국대 도서관, 권6은 한독의약박물관, 권7은 고려대 만송문고 등에 각각 전해진다.

『分類杜工部詩諺解』(1481, ‘杜詩諺解’)는 唐 杜甫의 시를 번역한 것으로, 1481년에 인출한 을해자본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²⁷⁾ 현전하는 번각본과 재번각본으로 보이는 판본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중엽까지 간행한 것으로 보이며 번각의 특성상 자체가 투박하고 굵어진 점이 있으나 을해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金剛經三家解』(1482)는 『金剛經五家解』에서 冶父(宋)의 頌, 宗鏡(宋)의 提綱, 조선초 高僧인 涵虛堂 己和(1376-1433)의 說誼를 한글로 구결을 달아 번역한 책이다.²⁸⁾ 한문의 大字는 丁丑字, 冶父의 頌, 宗鏡의 提綱, 己和의 說誼는 乙亥字 中字로 인출하였고, 한글 구결과 번역은 小字로 인출하였다.

『南明集諺解』(1482)는 唐의 永嘉大師 玄覺(665-713)의 어록인 『證道歌』에 南明泉이 계송을

25) 고려대 소장본(零本 1책)은 增定于公奏議輯覽, 增定駁稿輯覽, 增定奏議擇稿輯覽, 동국대 소장본(零本 1책)은 增定吏文輯覽, 增定吏文續集輯覽, 比部招議輯覽이 합본되어 있다.

26) 『朝鮮王朝實錄』 世祖 12年 6月 壬子.

27) 계명대도서관에 권11-12의 1책(보물 제1051-2호), 경기도박물관에 권13의 1책(보물 제1051-1호), 청주고인쇄박물관에 권21의 1책(보물 제1051-3호)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28) 규장각에 권2-5의 4책(보물 제772-2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권1, 5의 2책(보물 제772호), 보림사에 권1의 1책(보물 제772-3호), 계명대에 권2의 1책(보물 제772-4호)이 현전하고 있다.

불인 ‘永嘉大師證道家南明泉禪師繼頌’에 구결을 달고 언해하여 간행하였다. 世宗과 世祖가 생전에 번역을 이루지 못한 것을 세조의 비 慈聖大王大妃가 學祖에게 번역하게 하였고, 『金剛經三家解』 200부와 『南明集諺解』 500부를 인출하여 여러 사찰에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⁹⁾ 한문은 乙亥字 中字, 한글 구결과 번역은 小字로 인출하였다.

『靈驗略抄諺解』(1485)는 五大眞言 중 ‘大悲心陀羅尼, 隨求卽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등의 영적인 효험에 대해 설명한 『靈驗略抄』를 언해한 것이다. 1485년 仁粹大妃의 명으로 간행된 『五大眞言』(월정사 소장, 보물 제793-5호)의 뒤에 본 언해가 수록되어 있는데, 한문은 을해자, 언해는 小字로 인출하였다. 을해자본 『영험약초언해』의 번각본 내지는 번각본 계통의 판본은 智異山鐵窟板(1531), 豐基 哲菴板(1550), 恩津 雙溪寺板(1635) 등에서 간행된 판본이 전해져 『영험약초언해』는 을해자로 처음 인출한 이후 약 150년 동안 재생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佛頂心陀羅尼經諺解』(1485)는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을 마음으로 읽고 몸에 지니면 여러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명한 『佛頂心陀羅尼經』을 언해한 것이다. 서울대 일석문고 소장본은 한문 원문과 도상은 목판본이지만 권말에 붙은 언해가 乙亥字 小字로 인출하였다. 번각 내지는 재번각한 계통의 판본으로는 平安道 祥原 解脫菴板(1561), 慶尙道 尙州 奉佛庵板(1631) 등이 전해지고 있다.

『吏文諸書輯覽』(1539)은 崔世珍이 『吏文』에서 어려운 어구를 뽑아서 풀이한 책으로 초주갑인자 외에 을해자라도 인출하였다. 일본 존경각문고에 을해자본이 전하며, 17세기에 번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규장각에 전해진다. 『御製內訓』(1573)은 成宗의 생모인 昭惠王后가 부녀자들의 훈육에 요긴한 내용을 뽑아 편찬하여 1475년에 목판본으로 처음 간행하였고, 1573년에는 을해자로 인출하였다. 일본 蓬左文庫, 삼성출판박물관에 을해자본이 전해지고 있다.

『呂氏鄉約諺解』(1574)는 1518년 경상도관찰사 金安國이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해 朱子の 『呂氏鄉約』에 구결을 달고 언해하여 목판본으로 처음 간행하였고, 이후 1574년 을해자로 인출하였다. 서울대 일석문고, 성암문고, 연세대도서관, 고려대도서관 등에 을해자본이 전해지며 번각본 계열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에 간행한 것으로 규장각, 서강대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전해진다.

16세기 중엽 을해자를 사용하여 여러 의학 서적을 인출하였다. 『分門瘟疫易解方』(1542)은 金安國 등이 왕명으로 瘟疫(전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의서 중에 이해하기 쉬운 치료법을 모아 분류하고 언해한 책으로, 한문은 을해자, 언해는 을해자 小字로 인출하였다. 충남대도서관에 을해자본이 전해지고, 16세기말에 번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규장각 일사문고에 전해진다.

『救荒撮要諺解』(1554)는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救荒에 긴요한 항목만을 초록하고 언해를 덧붙여 1554년에 간행한 책이다. 을해자본은 일본 국회도서관 白井文庫에 전해지며, 을해자본 번각본으로 16세기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충남대도서관에 전해지고 있다. 한문은 을해자, 한글은 목활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29) 규장각에 상하권 2책, 고려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권하 1책이 전해진다.

『簡易辟瘟方診解』(1578)는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등이 中宗의 명을 받고 전염병 치료에 필요한 약방문에 언해문을 붙여 1525년에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이후 1578년에 인출한 을해자본이 고려대, 가천박물관(보물 제1249호) 등에 전해지며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에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번각본이 한글박물관에 전해진다. 또, 『牛馬羊猪染疫治療方』(1578)은 가축들이 걸리는 전염병에 대한 치료 약방문을 모으고 이두와 한글로 각각 번역한 수의학서이다.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일본 궁내청 서릉부 등에 을해자본이 전해지며, 규장각 일사문고에 1636년에 간행된 번각본 계통의 海州牧 간행본이 전해진다.

기타 『翻譯朴通事』, 『翻譯老乞大』는 1510년대에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번역박통사』는 崔世珍이 한문본 『朴通事』에 한글로 음을 달고 번역한 책으로 국회도서관에 전해진다. 『번역노걸대』는 『老乞大』를 언해한 책으로 초인본은 전하지 않으나 16세기 중엽에 간행된 을해자본의 번각본이 전해진다.

『四聲通解』(1517)는 최세진이 『洪武正韻譯訓』의 음계를 보충하고 字解가 없는 申叔舟의 『四聲通攷』를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중국어 운서로, 개인 소장인 을해자본과 일본 국회도서관에 번각본이 전해진다. 『老朴集覽』(1517)은 최세진이 『老乞大』와 『朴通事』 중 어려운 어구와 고유명사 등을 뽑아 설명한 책으로 동국대도서관에 을해자본이 전해진다.

『翻譯小學』(1518)은 中宗의 명을 받아 『小學』을 언해하여 1518년에 인출한 것으로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16세기 이후에 번각본만 전해진다. 을해자본 『阿彌陀經診解』(개인 소장)는 世祖가 『佛說阿彌陀經』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언해한 것으로, 15세기 중엽에 인출한 활자본만 전해진다. 1510년대에 경서의 대문에 한글로 구결을 인출한 『南華真經大文口訣』은 零本 1책(권 5, 6)이 성암문고, 『論語大文口訣』은 고려대도서관 화산문고, 『周易傳義口訣』은 국립중앙도서관 일산문고와 일본 宮內廳 書陵部に 전해진다.

3.3 乙酉字本

乙酉字는 1465년 왕명에 의해 鄭蘭宗의 글씨로 『圓覺經』을 찍기 위해 주조된 것이다. 을유자본의 한글문헌인 『圓覺經口訣』(1465)은 經文과 唐 宗密의 疏鈔에 구결을 달기 위해 한글활자를 만들어 함께 인출하였으며 16세기 중엽 번각한 중간본이 있다.

3.4 乙亥字體經書字本

을해자체경서자본은 『小學診解』와 四書 등 경서언해본을 찍기 위해 만든 최초의 한글활자본이다. 1587년 4월 李山海가 쓴 『소학언해』의 跋文에는 “만력 을유(1585년) 봄에 교정청을 열고 이듬해인

1586년 여름에 芸閣으로 하여금 『소학언해』 수백 부를 인출하라고 명하였다.”는 기록³⁰⁾이 있어 1586년 무렵부터 활자를 주조하여 『소학언해』를 가장 먼저 인출하였다. 『소학언해』 외에 이 활자로 찍은 『논어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대학언해』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모두 내사기가 1590년 인 것으로 보아 사서언해는 『소학언해』에 이어 1590년 무렵에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1590년 司憲府掌令 張雲翼에게 내사한 『孝經諺解』도 일본에 전해진다.³¹⁾

을해자체경서자본 사서언해와 『소학언해』가 같이 전해지는 것으로 도산서원 내사본³²⁾이 있다. 이 중 『소학언해』는 ‘萬曆十六年(1588)正月日 內賜 陶山書院 小學諺解 一件’의 내사기가 있어 1588년 정월에 내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이산해의 발문에 수록된 1586년 여름 宣祖의 『소학언해』 간행 지시와 1588년 정월 내사 기록, 『논어언해』, 『대학언해』, 『중용언해』 등이 공통적으로 ‘萬曆十八年(1590)七月日 內賜 禮安陶山書院’의 내사기가 있어 1590년 7월에 내사한 점으로 보아 1586년 여름부터 1588년 정월 사이에 활자를 주조하여 최소한 1588년 정월 전에 『소학언해』를 가장 먼저 인출하였고 약 2-3년 후인 1590년에 사서의 언해를 인출하여 여러 곳에 내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을해자체경서자본의 번각본은 주로 17-18세기에 간행된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을해자체경서자본 『소학언해』는 1588년 정월 이전에 인출하여 도산서원에 내사하였으며, 이후 번각본으로는 17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校書館上’의 장서기가 있는 판본, 咸營에서 간행한 것으로 권말에 ‘己丑月日咸營重刊’이 간기가 있는 판본, 제주향교 간행으로 ‘康熙二十四年歲在己亥(1685)冬濟州鄉校開刊’의 간기가 있는 판본이 재생산하여 을해자체경서자본의 체계를 이어왔다. 또, 도산서원에 내사된 『맹자언해』는 내사기가 결락되어 있으나 다른 사서언해의 내사 시기가 모두 1590년이므로 이때 함께 내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을해자체경서자본을 번각하여 1612년 교서관과 오대산 등에 내사하였는데,³³⁾ 한글 표기에 있어 방점은 사라졌으나 글자의 모양은 원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張/行/字	1/1/1	1/1/5	1/3/8	1/1/6	1/1/8	1/8/11
활자본						
번각본 ³⁴⁾						

<그림 1> 「소학언해」 활자본과 번각본 자체 비교(권5의 제1장)

30) 도산서원 내사본 「小學諺解」 跋文(한국국학진흥원 소장)

31) 內賜記: 萬曆十八年 九月日 內賜 司憲府掌令 張雲翼 孝經大義諺解(존경각문고 소장)

32) 도산서원 光明室에서 내려오던 고서 및 고문서는 1999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해 소장 중이다.

33) 규장각 소장(奎1886, 奎2880). 內賜記: 萬曆四十年(1612)十二月日 … 校書館上(奎1886). 萬曆四十年(1612)十二月日 … 五臺山上(奎2880), 四周雙邊, 半郭 23.7×16.9, 有界, 10/19,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4) 1612년 내사본(규장각 소장)

1631년에 史庫 등에 내사한 판본³⁵⁾은 1612년 판본과 비교해 글자의 모양뿐만 아니라 변란의 마모 상태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612년 내사본을 補板하여 後刷한 것으로 보인다. 간행시기가 불확실한 丙午咸鏡板(刊記: 丙午季秋咸鏡監營開刊)도 전해진다. 함경감영에서는 未詳의 병오년에 사서의 한문본 및 언해본을 모두 간행하였는데, 다른 언해본은 모두 을해자체경서자본 형태이나 「논어언해」는 무신자본 형태이다. 함경감영판의 간기 중 ‘병오년’의 시기를 고증하기 위해 책판목록을 확인해보면, 『冊板置簿冊』(1740년경 편찬)에 함영에 책판이 보관된 최초의 기록이 있다. 무신자는 1668년에 처음 주조되어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각한 함경감영판의 간년인 병오년이 1666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병오년의 연대는 1726년일 것이다.

<표 1> 을해자체경서자본 한글문헌과 번각본

서명	판식 및 소장처	번각본
小學諺解 (1588年 內賜)	四周雙邊, 半郭 25.5×18.2, 10/19, 上下內向三葉 花紋魚尾(국학진흥원)	- 17세기초 간행(규장각) - 己丑 咸鏡監營板(개인 소장) - 1685年 濟州鄉校板(장서각)
論語諺解 (1590年 內賜)	四周雙邊, 半郭 24.5×17.2, 10/19, 上下內向三葉 花紋魚尾(국학진흥원)	- 1612年 內賜本(규장각) - 17세기 중엽(규장각)
孟子諺解 (1590年 內賜)	四周雙邊, 半郭 23.0×18.3 10/19, 上下內向三葉 花紋魚尾(국학진흥원)	- 1612年 內賜本(규장각) - 1726年 咸鏡監營板(규장각)
中庸諺解 (1590年 內賜)	四周雙邊, 半郭 24.5×17.2, 10/19, 上下內向三葉 花紋魚尾(국학진흥원)	- 1684年 內賜本(규장각) - 1726年 咸鏡監營板(규장각)
大學諺解 (1590年 內賜)	四周雙邊, 半郭 25.3×18.3, 10/19, 上下內向三葉 花紋魚尾(국학진흥원)	- 1684年 內賜本(규장각) - 1726年 咸鏡監營板(규장각)
孝經諺解 (1590年 內賜)	일본 존경각문고	- 1666년 宋浚吉 內賜本 (규장각 소장)

4. 임란후 인출 한글활자본과 번각본 간행

이 장에서는 임란 후 무신자본부터 조선 말기까지 인출된 한글활자본의 인출과 한글활자본의 번각본 간행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4.1 戊申字本

戊申字는 1668년에 金佐明(1616~1671)이 호조 및 병조의 물자와 인력을 동원해 수어청에서 주성한 활자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무신자본 한글활자본은 「老乞大諺解」, 四書三經諺解, 「禮記

35) 장서각 소장(K1-167). 內賜記: 崇禎四年(1631)閏十一月日 內賜孟子諺解一件 積裳山城上, 규장각 소장본(奎524) 內賜記: 崇禎四年(1631)閏十一月日內賜... 香山, 五臺山上, 太白山上, 春秋館上 등.

大文諺讀, 『御製內訓』, 『女四書諺解』, 『小學諺解』, 『御製常訓諺解』, 『御製訓書諺解』, 『御製百行源』 등이 인출되었다.

『老乞大諺解』(1675)는 1675년 사역원에서 『老乞大』의 원문에 한글로 독음을 달고 언해한 중국어 학습서로 『翻譯老乞大』를 참고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새롭게 번역하였다. 『通文館志』 卷8 <書籍條>에 “內賜老乞大諺解二本, 康熙庚戌(1670) 陽坡鄭相國啓 令芸閣鑄字印行”이라는 기록에 의해 1670년에 최초로 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1675년 내사된 인본이 전해지고 있으며,³⁶⁾ 70년 후인 1745년경 평안감영에서 번각하여 간행하였다.³⁷⁾ 평안감영본의 序文에 의하면 “옛 활자본이 세월이 흘러 훼손되거나 散失되었고, 또古今에 있어 聲音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께서 관서지역은 역관들이 소통하는 곳이라 관서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활자본 인출 이후 70년이 경과되어 간행한 번각본을 비교해보면, 한자의 자체와 획별 굵기와 모양은 일치하나 일부 한자(京→京)와 한글 표기에 차이가 있다.

張/行/字	1/1/9	1/5/8	1/7/11	1/2/9	1/8/13	1/9/9
활자본						
번각본						

<그림 2> 「노걸대언해」 활자본과 번각본 자체 비교(권상의 제1장)

四書三經諺解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大學諺解』에 1695년 작성한 내사기³⁸⁾가 있고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도 같은 연도의 내사기가 있다.³⁹⁾ 『中庸諺解』도 1695년 내사기가 있어 이 무렵 사서언해를 함께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무신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庚午年(1870) 全州 河慶龍에 의해 사서중 『孟子諺解』를 제외한 『論語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가 간행되었다. 1916년 전주 七書房에서는 1870년 河慶龍板을 후쇄하였다. 기타 『詩經諺解』, 『書傳諺解』, 『周易諺解』도 무신자로 인출하였으며 후에 번각하여 전주에서 河慶龍에 의해 간행되었다.

『禮記大文諺讀』(1707)은 世宗이 명하여 『禮記』의 본문에 한글 토를 달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707년에 무신자로 인출하였다. 변란이 사주쌍변, 사주단변으로 구별되는 2종이 있으며, 번각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36) 대구가톨릭대 소장본에는 '康熙十四年(1675)正月二十九日 內賜 承政院假注書 李聯命 老乞大諺解 一件'의 내사기가 있다.

37) 四周雙邊, 半郭 24×16.8, 有界, 10/19, 內向二葉花紋魚尾(규장각 소장, 奎2303)

38) 康熙三十四年(1695)三月十七日 內賜侍講院弼善任胤元 … 右承旨臣 李(手決), 四周雙邊, 半郭 24.7×17.3. 10/17, 內向二葉花紋魚尾(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산古1238-18)

39) 康熙三十四年(1695)三月十七日 內賜弘文館副校理閔嶺厚 … 右承旨臣 李(手決)

『御製內訓』(1737)은 成宗의 생모인 昭惠王后가 『小學』, 『列女傳』, 『女教』, 『明心寶鑑』 등에서 부녀자들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뽑아 1475년에 처음 간행하였다. 규장각에 1737년 弘文館⁴⁰⁾과 兵曹判書 閔應洙가 받은 내사본이 전해진다.⁴¹⁾

『女四書諺解』(1737)는 英祖의 명으로 李德壽가 여자들의 대표적인 수신서인 『女四書』를 한문의 원문을 싣고 뒤에 언해를 붙여 1737년경에 무신자로 인출하였다. 한문에 한글 구결이 달려 있으며, 모든 한자에 당시의 한글음을 달았다. 무신자본을 저본으로 한 번각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小學諺解』(1744)는 을해자체경서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체재와 언해문의 문체는 답습하면서 방점과 표기법을 현실적으로 반영, 수정해서 무신자로 인출하였다. 영남대 소장본의 내사 기록⁴²⁾에 의해 1744년 무렵에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⁴³⁾ 무신자본 『小學諺解』를 저본으로 하여 20세기 초에 新舊書林(1913), 全州 七書房(1916), 光東書局(1918) 등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다. 신구서림 발행본은 ‘武橋新刊’이라는 저본 간기가 있어 이전에 武橋에서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御製常訓諺解』(1745)는 英祖가 숙종의 기일(1745. 6. 8)을 맞아 세자와 후왕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은 『御製內訓』을 번역한 교훈서이다. 한문 원문에 한글음과 구결을 달고 언해를 실었으며, 언해에 나오는 한자도 한자음을 달고 구결도 달았다. 왕실용으로 인출하였기 때문에 후에 번각하여 간행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로 번각하지 않은 것으로는 무신자본 『御製訓書諺解』(1756)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英祖가 당대에 효제심이 사라지는 것을 한탄하면서 『御製常訓諺解』를 지은 지 11년 만에 63세인 영조 자신의 연민함을 생각하면서 후세인들에게 교훈이 되는 글을 남기려고 하였다. 한문의 원문 없이 언해로 되어 있는데, 언해 속의 한자에는 각각 그 음을 달았다.

『四書栗谷諺解』(1749)는 栗谷 李珥가 1576년 宣祖의 명을 받아 언해한 것으로, 이이는 사서만을 언해하고 오경의 언해는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영조대에 洪啓禧가 필사본을 입수하여 1749년에 무신자로 인출하였다.⁴⁴⁾ 跋文에는 ‘崇禎三己巳(1749)春後學南陽洪啓禧謹識’의 기록이 있다. 이전에 간행된 무신자본 사서언해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따로 번각한 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율곡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은 수량만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御製百行源』(1765)은 英祖가 1765년에 효행이 모든 행동의 근원임을 강조하고 백성들을 일깨워 실천에 옮기도록 권장하기 위해 『孝經』을 바탕으로 설명을 붙인 『百行源』을 언해한 책이다. 한문 원문에 글자마다 한글 독음과 구결이 달려 있고, 이어 언해문이 실려 있다. 현재 전하는 번각본은

40) 內賜記: 乾隆二年(1737)六月二十四日 內賜 弘文館 御製內訓 一件, 四周單邊, 半郭 24.5×17, 10/17,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규장각 소장, 奎1163)

41) 內賜記: 乾隆二年六月二十四日 內賜 兵曹判書閔應洙 御製內訓 一件(규장각 소장, 古1149-2)

42) 乾隆九年三月二十四日 內賜 副司果宣政殿 小學訓義諺解一件 命除謝恩右承旨臣 趙(Y1186698)

43) 1744년에는 한문본 『小學諸家集註』(宣政殿 訓義)와 함께 무신자로 인출하였다.

44) 『中庸諺解』: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孟子諺解』: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연세대학교 소장, 『大學諺解』: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論語諺解』: 규장각 등 소장.

권말에 ‘芸閣活印諸道藏板’의 기록이 있어 각도에 배포하여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馬經抄集諺解』는 李曙(1580-1637)가 편찬한 수의학서를 언해한 책으로 18세기 초반 무신자로 인출하였다. 한문 원문의 한 문장마다 이어 언해문을 달았으며 한문 원문에 한글 독음과 구결이 달려 있다. 활자본은 범우사(주)에 소장하고 있으며 경북대 등에 번각본이 전해지고 있다.⁴⁵⁾

『辟瘟新方諺解』(18세기 초)는 孝宗의 명으로 安景昌 등이 황해도에 瘟疫으로 많은 피해를 입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전의 온역 관련 의서들을 참고하여 언해를 붙여 1653년에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이후 18세기 초 온역이 다시 창궐하자 무신자로 인출하였다. 무신자본의 번각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4.2 元宗字本

元宗字는 1693년에 仁祖의 아버지인 元宗(1580-1693)이 쓴 글씨체를 바탕으로 주조한 동활자로, 인본으로는 『孟子諺解』와 『孟子大文』만이 전하고 있다. 원종자본 『맹자언해』는 적은 부수를 인출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본이 매우 드물며 번각한 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원종자본의 인출 직후인 1695년경에 무신자본 사서언해가 인출되었고 이를 각 지방에 보급하여 번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3 丙辰倭諺字本, 芸閣印書體字本

丙辰倭諺字(校書館倭諺字)는 1676년에 교서관에서 만든 일본어활자로 글씨체는 安愼徽가 쓴 일본문자로 하여 『捷解新語』를 인출하였다.

『捷解新語』(1676)는 사역원에서 일본어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혔던 康遇聖이 일본인을 접대할 때와 통신사행을 수행할 때 쓰던 말들을 모아 편찬하였으며, 1676년 교서관에서 10권 10책으로 인출하였다. 활자본을 번각한 것으로 고려대 만송문고에 零本 1책(권1-3) 등이 전해지고 있다. 1748년에 ‘改修捷解新語’, 1762년 ‘重刊捷解新語’가 간행되었다.

芸閣印書體字는 ‘校書館印書體字’라고도 불리며, 명나라 글씨체를 모각하여 운각에서 만든 서체인 ‘印書體’의 글자체라 해서 붙여진 활자명이며 전기운각인서체자(1684년 이전), 후기운각인서체자(1723년 이전)로 구분된다.

『增修無冤錄諺解』(1790)는 시신 검안에 관한 법의학서로 正祖의 명으로 具允明이 편찬한 『增修無冤錄大全』을 徐有隣 등이 언해한 책으로, 1790년에 한문본과 함께 운각인서체자로 인출하였다. 본 활자본을 각도 감영에 보내어 목판에 다시 새겨서 인쇄, 보급하도록 하였는데, ‘丁巳(1797)七月嶺

45) 四周單邊, 半郭 25.0×16.3, 10/20,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국립중앙도서관: 古朝80), 장서각, 고려대도서관, 성균관대, 경북대도서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소장.

營新刊'의 간기가 있는 嶺營板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完營板도 전해지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영영과 완영에서 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⁴⁶⁾ 활자본과 번각본을 비교해보면 한문과 한글 부분의 표기가 큰 변화 없이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張/行/字	1-1-1	1-1-7	1-3-8	1-3-9	1-7-8	1-8-8	1-9-10
활자본	增	解	이	라	셔	는	또
번각본	增	解	이	라	셔	는	또

<그림 3> 「증수무원록언해」 활자본과 번각본 자체 비교(권1의 제1장)

4.4 丁酉字本

정유자는 1777년 정조가 평안감사 徐命膺에게 명하여 주조한 활자로 경서언해본을 다수 인출하였다. 정유자본 중 경서의 언해본은 많이 남아 있지 않으나 도산서원에 내사된 한문본 사서삼경이 완질로 전해지는데 모두 1793년에 내사되었다.⁴⁷⁾ 이로 보아 언해본도 비슷한 시기에 인출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유자본을 번각하여 1820년에 간행한 內閣板은 공통적으로 '庚辰新刊內閣藏板'의 간기가 있으며, 자체가 정유자본과 거의 일치한다. 내각판은 각도에 배포되어 嶺營 등에서 번각하여 사서삼경 전체가 재생산되었다.⁴⁸⁾ 그 밖에 20세기 초 京城의 光東書局, 匯東書館, 新舊書林에서 간행한 판본도 내각판을 재생산한 것이다.

『明義錄諺解』(1777)는 洪相範, 洪啓能 등이 일으킨 역모 사건의 전말에 대해 기록한 『明義錄』을 언해한 것이다. 번각본은 간기가 없으나 『各道册板目錄』(1778년경)에 경상감영, 전라감영, 홍충감영, 황해감영, 평안감영 등에 한문본과 함께 언해본 책판이 모두 보관된 기록이 있어 활자본 인출 후 각 도에 배포하여 번각하여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續明義錄諺解』(1778)는 『明義錄』의 속편으로 1778년에 인출하였다.

4.5 整理字本, 再鑄整理字本, 全史字本

整理字는 1795년 목활자인 生生字를 자본으로 하여 30만여 자를 주조한 동활자이다. 주자소의 화재로 활자가 소실됨에 따라 1858년에 다시 활자를 주조하였다. 1797년에 『五倫行實圖』를 인출하

46) 전북대에 『增修無冤錄諺解』를 찍은 책판 53장을 보관하고 있다.

47) 上之十八年 癸丑新印 內賜 先正臣左贊成文純公 李滉 陶山書院(한국국학진흥원 소장)

48) 論語諺解: 壬午新刊嶺營藏板, 孟子諺解: 甲申新刊嶺營藏板, 中庸諺解: 戊子新刊嶺營藏板, 大學諺解: 戊子新刊嶺營藏板, 周易諺解: 戊寅新刊嶺營藏板, 書傳諺解: 丙戌新刊嶺營藏板, 詩經諺解: 戊子新刊嶺營藏板

였으며, 1859년에 원본을 번각하여 재생산하였다.

尙史字는 1816년에 왕실 외척인 朴宗慶이 부친과 친지의 문집을 찍기 위해 주조하여 문집 등 다양한 서적을 찍어 보급하였다. 『華音啓蒙諺解』는 1883년 한학 역관이었던 李應憲이 지은 『화음계몽』에 한글로 번역하고 음독을 단 책으로 비슷한 시기에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어휘집 『화어류초』와 한 질로 간행하여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부편집국에서 발행한 교과서 중 再鑄整理字本 『新訂尋常小學』은 1896년 제주정리자와 병용 한글활자로 찍었으며, 『萬國略史』(1896)는 같은 해에 간행한 세계사 교과서로 권1은 목활자, 권2는 제주정리자와 병용 한글활자로 되어 있다. 이후 교과서 및 인쇄 방식의 변화, 일제강점기로 인해 이것을 번각한 사례는 없다.

5. 결 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생산된 한글활자본과 한글활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을 정리하여 한글활자본 인출 이후 번각본의 간행 양상과 시기적 범위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확인된 한글활자본은 총 76종으로, 이 중 46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번각하여 간행되었다. 한글활자본을 재생산한 것으로는 초주갑인자본 2종, 을해자본 14종, 을유자본 1종, 을해자체경서자본 6종, 병진왜언자본 1종, 무신자본 11종, 정유자본 9종, 교서관인서체자본 1종, 정리자본 1종이다.⁴⁹⁾

2. 임란전 한글활자본 중 초주갑인자본 『釋譜詳節』(1447-48년경)은 최초 인출 이후 16세기 초에 번각하였으며, 『杜詩諺解』(1481)는 18세기까지 번각 또는 재번각하여 간행된 판본이 전해져 약 200년 이상 원본의 형태 체제로 재생산되었다. 을해자본 『靈驗略抄諺解』(1485)는 智異山 鐵窟(1531), 豐基 哲菴(1550), 恩津 雙溪寺(1635) 등에서 원본을 번각하거나 번각본을 재번각하는 방법으로 원본 이후 약 150년 동안 재생산되었고, 을해자본 『佛頂心陀羅尼經諺解』(1485)도 平安道 祥原 解脫菴(1561), 慶尙道 尙州 奉佛庵(1631)에서 간행되어 약 150년 동안 을해자본 체제로 재생산되었다.

1588년과 1590년경에 을해자체경서자로 인출한 『소학언해』와 사서언해는 번각본과 재번각본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소학언해』는 17세기 초 간행 판본, 기축년 간기가 있는 함영판, 1685년 간기가 있는 제주향교판이 을해자본경서자본의 체제로 재생산되었다. 『논어언해』는 1612년 내사본, 17세기 중엽 간행 목판본, 『맹자언해』는 1612년 내사본, 병오년(1726) 간행 함영판, 『중용언해』는 1684년 내사본, 병오년(1726) 간행 함영판, 『대학언해』는 1684년 내사본, 병오년(1726) 간행 함영판이 현전하고 있다. 이렇듯 을해자체경서자본은 원본의 인출 이후 약 150여 년까지 재생산되었다.

3. 임란 후 한글활자본 중 1675년 인출된 무신자본 『老乞大諺解』는 평안감영에서 1745년에 기존에 내려오던 무신자본을 번각하되 당시의 한글 표기에 맞게 간행하였다. 1695년경에 인출한 것으로

49) 이와 관련해 [부록] 한글활자본과 재생산된 번각본'으로 첨부하였다.

추정되는 무신자본 사서삼경언해는 『論語諺解』가 咸營(1726), 全州의 河慶龍(1870), 七書房(1916), 『孟子諺解』가 豐沛(1807), 七書房(1916), 『大學諺解』와 『中庸諺解』가 河慶龍(1870), 七書房(1916), 『周易諺解』, 『書傳諺解』, 『詩經諺解』가 河慶龍(1870)에 의해 재생산되었다. 또한 『小學諺解』는 1744년 무렵에 인출한 이후 新舊書林(1913), 七書房(1916), 光東書局(1918) 등에서 재생산되어 약 170년 동안 이어졌다. 芸閣印書體字本 『增修無冤錄諺解』는 1790년에 인출되었고, 7년 후인 嶺營에서 번각하여 간행하였다.

정유자본 사서삼경언해의 현전본은 많지 않으나 1820년에 정유자본을 번각하여 內閣에서 사서삼경을 간행하였는데 공통적으로 ‘庚辰新刊內閣藏板’의 간기가 있으며, 이후 嶺營 등에서 번각한 언해본이 조선 후기 경서언해본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論語諺解』는 嶺營(1822), 京城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孟子諺解』는 嶺營(1824), 京城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中庸諺解』는 嶺營(1828), 京城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大學諺解』는 嶺營(1828), 京城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詩經諺解』는 嶺營(1828), 京城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書傳諺解』는 嶺營(1826), 京城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周易諺解』는 嶺營(1818), 京城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에서 간행하여 18세기 말 정유자본의 인출 이후 100여년 이상 재생산되었다. 정유자본 『明義錄諺解』는 1777년 인출 후 각 도에 배포하였는데 경상, 전라, 흥충, 황해, 평안감영 등에 책관을 보관한 기록이 있어 번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정리자본 『오륜행실도』는 1797년 정리자로 인출되고 62년 후인 1859년에 번각하여 교서관에서 간행하였다.

4. 가장 많이 재생산된 것은 조선후기 무신자본, 정유자본 등을 번각한 경서언해본이다. 조선후기 영정조대의 서적 간행 증가와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배포하여 번각, 간행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글활자본은 인출하였으나 후에 재생산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694년 인출된 元宗字本 『맹자언해』는 1695년경에 인출된 무신자본이 후에 보편화되어 이를 조선 후기까지 번각하였기 때문에 재생산되지 않았다. 비슷한 이유로 乙亥字本 『楞嚴經諺解』는 1년 후에 간행된 간경도감본을 각 사찰에서 번각하였기 때문에 재생산되지 않았다. 또한 『御製常訓諺解』는 보급용이 아닌 왕실 교화용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재생산하지는 않았으며, 1749년 무신자로 인출한 『四書栗谷諺解』는 권력의 조력으로 일시적으로 인출되었을 뿐 보급되지는 않았다. 기타 20세기 말 인출된 再鑄整理字本 『新訂尋常小學』과 『萬國略史』는 이후 교과서 및 인쇄 방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재생산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생산된 한글활자본과 한글활자본을 번각하여 재생산한 판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현전 판본을 위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더 많은 한글활자본, 한글활자본의 번각본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글표기의 변화 등 국어학적인 접근, 한글본 운음에 대한 조사, 한글활자의 금속활자와 목활자 구별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차후 심층적인 접근과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남권희. 『지식정보의 소통과 한국 금속활자 발달사』. 대구: 경북대 출판부, 2018.
-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윤형두. 『옛책의 한글판본』. 서울: 범우사, 2003.
- 정형우·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 서울: 경인문화사, 1995.
-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범우사, 1990.
-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 강순애. “조선조 한글활자 판본을 통해 본 활자주조법의 기술적 발전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39집(2008). 31-68.
- 김무봉.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현황과 사회 문화적 의의.” 『동악어문학』 제58호(2012). 5-50.
- 김성수. “『월인천강지곡』 한글활자 복원을 위한 실험 주조·조판 연구.” 『서지학연구』 제49집(2011). 143-167.
- 김풍기.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문화적 의미 - 중화문명권으로의 진입과 탈출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58집(2012). 165-188.
- 석주연. “조선시대 한글문헌의 간행 경위와 배포 양상 연구 - ‘소통’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7호(2010). 43-70.
- 신정엽. “조선시대 간행된 소학 언해본 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2009). 409-448.
- 안현주. “조선시대 『사서』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 옥영정. “『월인천강지곡』의 인쇄사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국어사연구』 제26호(2018). 129-158.
-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활자 연구.” 『서지학연구』 제31집(2005). 89-120.
-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제41권(2008). 83-114.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 Hyun-Joo. 2007. *A study on various editions of the Four books in Chosun dynasty*. Th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2009. *The old print culture of Korea*. Cheongju: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Chon, Hye-Bong. 1990. *A history of printing in Korea*. Seoul: Bumwoosa.

Jeong, Hyung-Woo and Yun, Byung-Tae. 1995. *List of woodblock in Korea*. Seoul: Kyungin

Publishing.

- Kang, Soon-Ae. 2008.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Casting Hangeul Movable Types in Hangeul Movable Printing Editions in the Jeseon Period."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9: 31-68.
- Kim, Mu-Bong. 2012. "Status and sociocultural meanings of Eonhae project in Early age of Choseon."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58: 5-50.
- Kim, Pung-Gi. 2012. "Cultural Significance of Vernacular Translation Project in Early Joseon."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58: 165-188.
- Kim, Sung-Soo. 2011. "A Research on the Restoration of Experimental Casting and Typesetting of Hangeul Types of Worin Chongangjigok."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9: 143-167.
- Lee, Ho-Kwon. 2008. "Time-Based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Joseon's Publication of Hangeul Literature." *Korean Linguistics*, 41: 83-114.
- Lee, Jae-Jeong. 2005. "A Study of Hangeul Printing Types in the Collection of NMK."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1: 89-120.
- Nam, Kwon-Hee. 2018. *Communic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History of Korean Metal Type Development*.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 Ok, Young-Jung. 2018. "Re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Wolincheongangjigok in Printing History."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26: 129-158.
- Shin, Jung-Yub. 2009. "A Study on the Korean Annotations of Sohak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4: 409-448.
- Son, Bo-Gi. 2000. *Metal type and Printing Technology*. Seoul: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Suk, Ju-Yeon. 2010.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Hangeul Texts in Chosun Dynasty: Communication in Hangeul." *Hanminjok Emunhak*, 57: 43-70.
- Yun, Hyung-Du. 2003. *A Korean-Language Edition of an Old Book*. Seoul: Bumwoosa.

[부록] 한글활자본과 재생산된 번각본

한글활자본(활자명 / 서명)	번각본
甲寅字本	釋譜詳節(1447-48) 15c말~16c초(리움미술관) 句解南華真經口訣(16c 中) 17c후~18c초
乙亥字本	救急方診解(1466년경) 16c 중반(日 蓬左文庫)
	分類杜工部詩診解(1481) 17c중엽-18c초중엽
	靈驗略抄診解(1485) 智異山 鐵窟板(1531, 국립중앙도서관), 豐基 晬菴板(1550, 규장각), 恩津 雙溪寺板(1635,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佛頂心陀羅尼經診解(1485) 解脫菴板(1561), 奉佛庵板(1631)
	救急簡易方診解(1489, 失傳) 16c말-17c초(권1 규장각, 권2 국학진흥원, 권3 동국대, 권6 한독의학박물관, 권7 허준박물관, 영남대, 고려대)
	吏文諸書輯覽(1539) 17c(규장각 소장)
	分門瘟疫易解方(1542) 16c말(규장각 소장)
	救荒撮要診解(1554) 16c(충남대도서관 소장)
	呂氏鄉約診解(1574) 16c말-17c초
	簡易辟瘟方診解(1578) 한글박물관
	牛馬羊猪染疫治療方(1578) 1636년 海州板(규장각 소장)
	四聲通解(1571) 16c(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
	翻譯老乞大[1510] 16c 중엽(권상 개인소장, 권하 성암문고)
	翻譯小學[16c, 失傳] 16c 이후(고려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乙酉字本	圓覺經口訣(1465) 16c 중엽(규장각, 성암문고)
乙亥字體 經書字本	小學診解(1588年 內賜) 17c초(규장각), 己丑咸營(개인소장), 1685年 濟州鄕校(장서각)
	論語診解(1590年 內賜) 1612年 內賜(규장각), 17c 중엽(규장각)
	孟子診解(1590年 內賜) 1612年 內賜(규장각), 1726年 咸營(규장각)
	中庸診解(1590年 內賜) 1684年 內賜(규장각), 1726年 咸營(규장각)
	大學診解(1590年 內賜) 1684年 內賜(규장각), 1726年 咸營(규장각)
	孝經診解(1590年 內賜) 1666年 宋浚吉 內賜本
戊申字本	老乞大診解(1675) 平安監營板(1745)
	論語診解(1695년경) 河慶龍(1870), 七書房(1916), 咸鏡監營板(丙午)
	孟子診解(1695년경) 豐沛(1807), 七書房(1916)
	大學診解(1695년경) 河慶龍(1870), 七書房(1916)
	中庸診解(1695년경) 河慶龍(1870), 七書房(1916)
	周易診解(1695년경) 河慶龍(1870)
	書傳診解(1695년경) 河慶龍(1870)
	詩經診解(1695년경) 河慶龍(1870)
	小學診解(1744) 武橋(?), 新舊書林(1913), 七書房(1916), 光東書局(1918)
	御製百行願(1765) 18c말(규장각, 장서각 등)
	馬經抄集診解(18c초) 18c 초중엽(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 등)
丙辰倭診字本	捷解新語(1676) 17c말(고려대 권1-3, 대마도 宗家文庫 10권 3책)
芸閣印書體字本	增修無冤錄診解(1790) 1797년(丁巳七月嶺營新刊)
丁酉字本	論語診解 內閣(1820), 嶺營(1822),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孟子診解 內閣(1820), 嶺營(1824),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中庸診解 內閣(1820), 嶺營(1828),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大學診解 內閣(1820), 嶺營(1828),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詩經診解 內閣(1820), 嶺營(1828),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書傳診解 內閣(1820), 嶺營(1826),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周易診解 內閣(1820), 嶺營, 匯東書館, 光東書局(1918)
	明義錄診解(1777) 『各道册板目錄』(1778년경) 수록
字恤典則(1783) 18c 후기 校書館(규장각, 장서각, 고려대, 계명대 등)	
整理字本	五倫行實圖(1797) 校書館(1859)